

## 집단실체성에 따른 집단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

김범준 · 송관재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 1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대한 집단실체성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Campbell이 제시한 실체성 개념에 기초하여 집단실체성을 측정하는 기준 7개를 만들었고 이들 기준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세기준을 포함하는 5가지의 기준 즉,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결과의존성, 그리고 상호작용 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은 상관이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2에서는 집단실체성에 기초하여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선정하고 이 두 집단에 대한 추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으로 선정된 집단은 대학교수 집단과 국회의원 집단이었고 낮은 집단은 경상도 출신집단과 전라도 출신집단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조건에서는 2개의 군집이 나타났고, 집단실체성이 낮은 집단조건에서는 5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이는 집단실체성에 따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구성원을 관찰할 때 또는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추론을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이나 의도, 그들의 미래행동, 행동의 원인, 그들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일반화 등에 대한 추론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추론하느냐에 관한 것은 사회적 지각이라는 주제로 사회심리학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Hamilton & Sherman, 1996). 사회적 지각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지각자의 지각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의 연구들이 서로 구분되어져 왔다. 사회적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의 지각에 관한 연구, 집단의 지각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자기지각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이 중 개인과 집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Hamilton & Sherman, 1996). 먼저 개인의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인상형성이라는 주제하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형성하며 인상형성과정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원리 및 기제들이 무엇인가를 주로 다루었다. 이 영역에서의 주된 연구자들로 Asch, Anderson, Fiske, Hastie, Srull, Wyer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의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고정관념의 형성이라는 주제하에 개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개념형성과 집단간 갈등 및 정보처리과정들을 주로 다루었다. Katz와 Braly, Allport, Tajfel, Brewer, Devine, Rothbart, Turner 등은 집단간 지각에 관한 연구들을 선두적으로 이끌고 있는 연구자들이다.

개인의 지각에 관한 연구와 집단의 지각에 관한 연구들은 지각대상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 실체 (social entity)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 즉, 두 영역에 관한 연구들 모두 지각자가 사회적 표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며, 사회적 표적에 대한 판단 및 행동결정을 할 때 지각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연구들이다. 두 영역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각각의 연구들을 서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기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왔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Stren, Marrs, Miller, & Cole, 1984; Stroessner, Hamilton, Acorn, Czyeweska & Sherman, 1989)에서 지각대상이 개인일 때와 집단일 때 정보처리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은 주로 착각상관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McConnell, Sherman, & Hamilton, 1994; Sanbonmatsu, Shavitt, & Sherman, 1987). 착각상관이란 사람들이 사건들을 관찰할 때 실제로는 두 사상간에 존재하지 않는 상관을 마치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Chapman, 1967). 이들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개인 및 집단의 구성원이란 것으로 묘사된 행동기술문(바람직한 행동과 비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해주고 개인 및 집단이 행한 행동의 수를 추정하게 하였다. 이때 개인 및 집단의 특출성이 조작되었고 행동의 특출성은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의 수를 통해 조작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극대상이 집단인 경우, 특출한 두 사상간의 공발생에 대한 착각상관이 나타났다. 즉 피험자들은 특출한 집단(소수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특출한 행동(비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자극대상이 개인조건인 경우, 그 결과는 집단조건의 경우와 달랐는데 피험자들은 특출한 개인의 빈번한 행동 즉 바람직한 행동을 과다추정하는 착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Stroessner 등(1989)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정보가 기억에서 조직화되는 방법을 서로 비교해보는

연구를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네명의 표적이 행한 것으로 묘사되는 32개의 행동기술문(각 표적당 8개의 행동기술문)을 읽었다. 실험에는 개인 표적조건과 집단표적조건이 있었는데 개인표적 조건에서는 네사람의 표적인물이 각기 다른 개인인 것으로 묘사되었고 집단표적 조건에서는 각각의 표적인물이 각기 다른 네집단중 한 집단의 구성원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피험자들은 행동기술문을 읽은 후 자유 회상과제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연구자들은 정보가 기억에서 조직화되는 방법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해보았다. 결과를 보면 개인표적 조건의 피험자들은 집단표적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표적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조직화하였다. 즉 같은 표적개인을 묘사하는 행동기술문은 자유회상시 함께 회상되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기억에 같이 저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표적 조건의 피험자들이 집단표적조건의 피험자들 보다 의미있게 더 많은 행동기술문을 회상해 내었다. 조직화된 정보가 기억에서 더 잘 인출된다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지각자가 집단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보다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를 더 잘 조직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각자들이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를 할 때 자극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리가 표적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사전기대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을 지각할 때는 개인이 매우 독특한 단일개체로서 응집적이고 일관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지각자가 개인을 지각할 때는 개인에 대해 단일성(unity)과 통일성(coherence)을 가정한다는 것이다(Hamilton & Sherman, 1996). 지각자는 한 개인이 항상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타고난 본질과 성격의 주된 측면들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다양한 행동들 및 특성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들은 개인의 주된 성격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성격에 대한 지각자의 단일성과 통일성 가정은 지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상을 형성할 때에도 반영되어 지각자는 다른 사람의 성격에서 이러한 단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지각자가 표적개인에 대해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각자는 그 개인의 성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질적인 특성을 찾으려고 한다. 지각자는 표적개인의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행동 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에 대한 대응적인 특질추론 및 평가적인 판단을 한다. 이러한 대응추론과정은 지각자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인상형성에 기초가 되는 특질이나 태도, 기질적인 특성 등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Jones, 1990; Jones & Davis, 1965). 행동정보로부터 기질을 추론하는 과정은 가끔 지각자가 표적개인을 관찰하거나 그 개인에 대해 정보를 얻을 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각자가 성격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특성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할 때 표적개인에 대해 얻어진 정보는 특질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어 진다. 이렇게 지각자가 표적개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응적인 추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었다(Uleman, 1987; Winter & Ukeman, 1984; Gilbert, 1989; Gilbert, Pelham, & Krull, 1988; Carlston & Skowronski, 1994).

또한 자극대상이 개인일 때 지각자의 기본적인 또 다른 전제는 표적개인의 행동이나 특질에 대해 일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지각자는 개인의 특정한 행동이 주어지면 그 개인이 그와 일치하는 다른 행동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한 개인이 특정한 특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면 그와 일치하는 다른 특질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Asch, 1946; Kelley, 1967; Lutsky, Bacon, & Dawson, 1994; Sneider, 1973). 일관성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개인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Hirt, 1990). Hirt에 의하면 지각자가 표적개인의 현재 행동을 관찰하면 그들의 과거 및 미래 행동에 대해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추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정성 요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속성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일관성의 가정은 지각자가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시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보다는 불일치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한다. 이를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정보처리와 비교한 연구는 Stern 등(1984)의 연구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한 다음 이후 최초의 인상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행동기술문을 제시해 주었다. 각각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될 때마다 피험자들로 하여금 컴퓨터의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치, 불일치 정보에 대한 처리속도를 살펴보았다. 표적이 개인인 조건을 살펴보면, 피험자들은 최초의 인상과 일치하는 정보보다는 불일치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반면 표적이 집단인 경우, 즉 행동기술문이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한 것으로 묘사되었을 때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처리속도에는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시에는 개인의 경우와는 달리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극대상이 집단인 경우 지각자는 집단에 대해 일관성을 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rull, 1981; Srull et al., 1985; Stangor & McMillan, 1992). 그러나 Stern 등(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은 실험상황에서 만들어진 임의의 집단이었다. 실험에서 다른 유형의 집단이 사용되었을 때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집단의 형태와 그 특성에 따라 지각자의 기본적인 가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상의 차이는 표적대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대상의 단일성 및 통일성에 대한 지각자의 사전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별로 없으나 Coover와 Reeder(1990)가 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극대상이 행한 특정한 행동(도덕적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을 보여준 다음 이후 행동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때 행동을 수행한 사람을 한 개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한 것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자극대상의 지

각된 단일성을 조작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극대상의 지각된 단일성의 정도에 따라 이후 행동의 기대에서 일관성이 달리 나타났다. 이는 자극대상의 본질에 대한 지각자의 기본적인 가정 및 기대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적에 대한 피험자의 사전기대 및 표적의 본질에 대한 가정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지각자가 집단 유형에 따라 기대와 가정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인지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집단유형으로는 피험자들의 그림에 대한 선호도를 기초로 한 최소집단 패러다임(Tajfel, 1970), 점추정과정(Howard & Rothbart, 1980), 성격유형별 집단(Shaller & Maass, 1989), 임의의 집단(Hamilton & Gifford, 1979), 인종별 집단(Taylor, 1981), 지역별 집단(송관재, 199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집단유형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각자가 이들 집단들을 지각할 때 동일한 가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지각자가 성격유형별 집단을 지각할 때는 개인을 지각할 때와 유사하게 집단에 대해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각자가 지역별 집단을 지각할 때에는 집단에 대해 단일성을 가정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지역출신이라도 각기 다른 성격 및 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그들의 행동 및 개개인의 주된 특성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극집단의 유형에 따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정은 착각상관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인지적 특출성과 집단소속감에 따른 동기적 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Shaller와 Maass(1989)의 연구와 송관재(1993)의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두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은 지각자가 특출한 표적이 행한 최소한 행동을 지각할 때 그 행동을 과다지각하는 착각상관이 일어나는데 지각자의 집단소속감을 달리하였을 때 지각자의 집단소속에 따른 동기적 효과가 착각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다. 두 연구에서 사용된 절차와 방법은 유사하였으나 Shaller 등(1989)의 연구

에서는 지각자의 집단소속감을 성격집단으로 설정하였고 송관재(1993)의 연구에서는 지역집단으로 지각자의 집단소속감을 조작하였다. Shaller 등의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예언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다수집단의 구성원이 소수집단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최소한 경우를 지각할 때 착각상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송관재의 연구에서는 다수집단의 구성원이 소수집단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최소한 경우를 지각할 때 착각상관이 일어났다. 두 연구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지각자의 집단소속감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집단의 유형에 있을 수 있다. 지각자들이 성격집단을 지각할 때는 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지각자가 지역집단의 구성원들을 지각할 때에는 같은 지역출신이라도 구성원들간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며 그들에 대해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각자가 집단의 유형에 따라 일정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각기 다른 가정과 기대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Donald Campbell(1958)은 집단의 실체성(entita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체성이란 지각된 단일성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집합체가 실체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모든 집단은 나름대로의 의미에 기초하여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체성의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실체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의 단일성의 정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지는 것,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성격이나 취미, 태도, 가치 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의 실체성에 대한 지각자의 가정이 집단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각자가 집단을 지각할 때 집단유형에 따라 지각자의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들이 각기 다른 실체성의 정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집단유형별로 실체성의 정도를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실체성이 서로 다른 집단들에 대해 피험자들의 집단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러 형태의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들의 적합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후 측정된 집단의 실체성의 정도에 기초하여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각각 선정하여 각 집단들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 연구 1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에 대해 갖고 있는 실체성의 정도를 각 집단유형별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Campbell(1958)이 실체성의 개념을 만들 때 인용한 지각적 조직의 원리(Wertheimer, 1923)에 기초해서 선정하였다. 지각적 조직의 원리는 근접성, 유사성, 공동운명, 좋은 형태 등이다. 이들 원리들에 기초하여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만들고 각 기준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피험자

피험자는 Y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288명이었다. 이들 중 남자는 115명(40%)이었고 여자는 173명(60%)이었다.

###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는 집단의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문항이 포함되어졌다. 먼저 Campbell(1958)이 제시한 집단에 대한 지각에 관여하는 세 가지 기본조직의 원칙 즉 공동의 운명, 유사성, 근접성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근접성의 개념은 집단에 적용시키기 위해 집단의 통일성으로 개념을 바꾸었다. 이들 외에 연구자들이 만든 4개의 항목들 즉 결과의존성,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집단침투성, 집단자긍심 등이 포함되었다. 7개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동의 목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정도

유사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정도

통일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잘 묻치고 단합이 잘되는 정도

결과의존성: 집단에 속한 한 구성원의 결과에 따라 다른 집단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

상호작용: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접촉과 교류의 정도

집단침투성: 한 사람이 집단에 가입하거나 떠나기가 쉬운 정도

집단자긍심: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정도

집단의 유형별로 집단실체성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집단유형이 포함되었는데 먼저 기존의 집단에 대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집단유형을 포함시켰고 사전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집단유형을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 절 차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들을 제시해주고 각 집단유형이 7가지의 기준상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9점 척도상에 나타내도록 하였다. 예컨대 집단구성원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경우 피험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들에 대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까지 자신들의 견해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기준 중에서 몇 가지 기준들은 학생들이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지시문에 덧붙였다(예, 우리가 어떤 집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는 반면 어떤 집단은 특별한 조건을 달아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집단에 받아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어떤 집단은 집단구성원이 쉽게 떠날 수 있는 반면 어떤 집단은 집단구성원이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집단구성원

으로 가입하거나 떠나기가 쉬운 정도를 집단침투성이 라고 표현합니다. 집단침투성이 높다는 것은 집단에 가입하거나 떠나기가 쉬운 경우를 의미하며, 집단침투성이 낮다는 것은 집단에 가입하거나 떠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각 집단에 대해 집단침투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에 대해서 각 기준들을 측정할 때 제시되는 집단유형의 순서는 설문지마다 무선적으로 달리하여 순서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포함된 여러 가지 유형의 집단들에 대해 피험자들이 응답한 기준들의 평균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간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가족구성원들(6.71)이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로 좋

아하는 친구들(6.40),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6.00)의 순이었다. 유사성이 낮게 보고된 집단 유형을 보면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1.79), 서울에 사는 사람들(2.04),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2.26)의 순이었다. 각 집단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서로 같은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6.99), 같은 정당에 속해있는 사람들(6.91), 군인들(6.53)이 높은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2.03),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2.75), 여자들(2.79)이 낮은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집단통일성을 살펴보았는데 집단구성원들끼리의 단합의 정도와 응집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가족구성원들(8.16),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7.64), 군인들(7.17)은 집단통일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

표 1. 각 집단 유형별 기준들의 평균값

집 단 명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결과의존성	상호작용	집단침투성	자긍심
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2.95(1.95)	3.78(2.00)	4.30(1.83)	3.91(2.11)	4.07(1.99)	5.15(2.15)	5.59(1.73)
한국 국적의 사람들	3.29(2.39)	3.45(2.27)	4.60(2.34)	3.91(2.46)	3.59(2.28)	3.30(2.68)	5.57(2.15)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	<u>6.40(2.10)</u>	4.82(2.14)	<u>7.64(1.53)</u>	5.78(2.26)	<u>7.42(1.74)</u>	3.89(2.36)	<u>7.13(1.79)</u>
여자들	3.70(2.17)	2.79(1.65)	3.64(1.99)	2.88(1.93)	3.41(1.95)	3.57(2.76)	3.85(1.85)
가족구성원들	<u>6.71(1.96)</u>	6.14(2.14)	<u>8.16(1.24)</u>	<u>7.61(1.84)</u>	<u>8.33(1.21)</u>	2.23(2.45)	7.23(1.77)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	1.79(1.63)	3.74(2.97)	1.56(1.00)	2.16(2.08)	1.68(1.29)	<u>7.56(2.63)</u>	1.60(1.16)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6.00(2.03)	5.85(2.20)	5.35(2.04)	3.93(2.19)	5.08(2.15)	5.65(2.16)	5.59(2.08)
국회의원들	4.39(2.27)	6.31(2.08)	4.43(2.19)	5.24(2.31)	5.61(2.11)	4.69(2.27)	6.54(2.14)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4.16(2.08)	5.17(1.99)	4.21(1.72)	4.11(2.02)	4.90(1.83)	4.28(2.09)	<u>6.84(1.89)</u>
군인들	5.55(2.51)	<u>6.53(2.27)</u>	<u>7.17(1.90)</u>	5.97(2.46)	6.20(2.21)	4.04(2.60)	5.14(2.19)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	4.16(2.18)	2.75(1.77)	4.86(2.20)	3.08(2.05)	3.50(1.96)	3.62(2.48)	5.05(2.00)
같은 학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	4.46(2.12)	5.53(1.89)	5.49(1.80)	4.90(2.12)	5.90(1.80)	4.39(2.01)	5.92(1.77)
60세 이상의 사람들	3.93(2.23)	3.00(2.01)	2.98(1.66)	2.58(1.76)	3.07(1.84)	4.36(2.77)	2.72(1.54)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5.34(2.03)	<u>6.99(1.78)</u>	6.84(1.82)	<u>6.51(2.05)</u>	<u>6.50(1.72)</u>	4.92(2.03)	5.65(1.83)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	4.46(2.36)	3.13(2.05)	5.66(2.36)	3.23(2.11)	3.83(2.11)	3.37(2.43)	5.08(2.21)
같은 회사의 회사원들	4.32(2.04)	5.73(1.79)	5.73(1.75)	5.80(1.99)	5.98(1.73)	5.09(1.90)	5.75(1.57)
의사들	4.84(2.15)	5.35(2.14)	4.27(1.87)	4.16(2.16)	4.32(1.95)	4.25(2.26)	<u>6.84(1.92)</u>
운동선수들	5.19(2.21)	6.37(2.00)	5.40(2.04)	5.08(2.37)	5.12(2.19)	4.58(2.11)	6.00(1.69)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2.26(1.58)	2.33(1.53)	3.10(1.66)	2.41(1.61)	3.16(1.67)	<u>6.69(2.50)</u>	3.09(1.81)
경찰관들	5.14(2.09)	6.14(1.96)	5.50(1.87)	4.73(2.12)	5.37(1.97)	4.61(1.90)	5.41(1.83)
건설노동자들	4.76(2.09)	5.20(1.98)	4.91(1.96)	4.50(2.21)	5.02(2.01)	5.75(2.16)	3.67(1.88)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5.56(2.17)	<u>6.91(1.94)</u>	6.19(2.16)	<u>6.73(1.94)</u>	6.40(1.90)	5.26(2.23)	6.03(1.99)
서울에 사는 사람들	2.04(1.54)	2.03(1.38)	2.31(1.51)	2.18(1.51)	2.42(1.71)	<u>6.68(2.71)</u>	3.68(2.14)
전	5.15(1.03)	4.78( .94)	4.96( .92)	4.40(1.01)	4.82( .93)	4.70( .84)	5.22( .85)

유형들이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1.56), 서울에 사는 사람들(2.31), 60세 이상의 사람들(2.98)은 집단통일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다. 결과의존성은 같은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의 결과에 따라 다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 결과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족구성원들(7.61), 같은 정당에 속해있는 사람들(6.73),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있는 사람들(6.51)은 결과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2.16), 서울에 사는 사람들(2.18),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2.41)은 결과의존성이 낮은 집단으로 지각된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구성원들(8.33),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7.42),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6.50)은 상호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1.68), 서울에 사는 사람들(2.42), 60세 이상의 사람들(3.07)은 상호작용이 적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다. 다음으로 집단침투성에 대해 측정하였는데 집단침투성은 한 개인이 집단에 가입하거나 떠나기가 쉬운 경우 집단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7.56),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6.69), 서울에 사는 사람들(6.68)은 집단침투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고 가족구성원들(2.23), 전라도출신의 사람들(3.37), 한국국적의 사람들(3.30)은 집단침투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다. 마지막 기준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좋아하는 정도를 집단자긍심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7.13),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6.84), 의사들(6.84)은 집단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고,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1.60), 60세 이상의 사람들(2.72),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3.09)은 집단자긍심이 낮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유형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7가지의 기준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기준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집단유형이 포함되었는데 그 중 한 집단유형인 대학교수집단을 선택하여 각 기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각 기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을 제외한 5가지의 기준들은 각각 0.30에서부터 0.65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01$ )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집단침투성 변인은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제외한 다른 기준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자긍심은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등의 기준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결과의존성,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집단유형에 대한 결과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준들간의 관련성을 달리 살펴보기 위해 Campbell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유사성, 공동의 운명, 통일성)들과 다른 기준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준

표 2.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간의 상관관계(대학교수의 경우)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결과의존성	상호작용	집단침투성	자긍심	Campbell <sup>a</sup>
유사성	1.0000							
공동운명	.3810****	1.0000						
통일성	.4113****	.4715****	1.0000					
결과의존성	.3072****	.4401****	.4589****	1.0000				
상호작용	.3218****	.4020****	.6541****	.4432****	1.0000			
집단침투성	-.0788	.0111	.0612	.0472	.1217*	1.0000		
자긍심	.1514*	.1772**	.1384*	.0500	.1079	-.1934***	1.0000	
Campbell	.7824****	.7927****	.7753****	.5052****	.5733****	-.0079	.2002**	1.0000

\*,  $p < .05$ ; \*\*,  $p < .01$ ; \*\*\*,  $p < .001$ , \*\*\*\*,  $p < .0000$

a: Campbell의 실체성에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유사성, 공동운명, 그리고 통일성을 합한 값임.

표 3. 각 집단 유형별 5가지 기준들로 구성된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집 단 명	신뢰도계수	집 단 명	신뢰도계수
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7977	60세 이상의 사람들	.7723
한국 국적의 사람들	.8423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	.8381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	.7160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	.8379
여자들	.8113	같은 회사의 회사원들	.7661
가족구성원들	.6780	의사들	.7979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	.6240	운동선수들	.7401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8535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8273
국회의원들	.7609	경찰관들	.8220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7837	건설노동자들	.7830
군인들	.7697	같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8236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	.7958	서울에 사는 사람들	.8112
같은 학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	.7869		

들 중에서 통일성은 Campbell이 제시한 근접성의 개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집단단각에 적용하는 경우 그 의미는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세 가지 기준에 포함시켰다. 대학교수 집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세 가지 기준에서의 반응을 합하여 다른 기준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를 보면 세 가지 기준들은 결과의존성( $r=0.412, p<.001$ ), 상호작용( $r=0.553, p<.001$ ), 그리고 자긍심( $r=0.143, p<.05$ )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집단침투성( $r=0.012, ns$ )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준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시킨 기준들중 집단침투성과 집단자긍심은 적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개의 기준들만을 포함시켰을 때의 신뢰도 계수를 집단유형별로 산출해 보았다(표 3). 집단유형별로 5가지 기준들을 포함한 실체성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 집단( $\alpha=0.678$ )과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는 사람들( $\alpha=0.624$ )은 신뢰도계수가 약간 낮았으나 다른 모든 집단유형에 대해서는 기준들 간의 신뢰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유형별로 집단의 실체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5가지의 기준들이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1에서는 다양한 집단유형별로 집단실체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 Campbell의 집단실체성 개념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하고 각 기준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Campbell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들, 즉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기준들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들 기준 외에 연구자들이 포함시킨 네 가지 기준들중 결과의존성 및 집단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기준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은 다른 기준들과 상관이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침투성의 경우는 설문지의 지시문에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국적의 집단과 여자집단을 비교하면 한국국적의 집단보다 여자집단이 침투성이 낮아야만 한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의 집단이 여자집단보다 집단침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자긍심의 경우에는 개념자체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집단을 지각할 때보다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지각할 때 갖는 속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1의 결과에 기초하면 이후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5가지의 기준들 즉 유사성, 공동운명, 통일성, 결과의존성, 그리고 집단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7가지의 기준이외에 피험자들로 하여금 '각 집단유형에 대해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척도상에서 나타나



게 하였다. 이 결과를 실체성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들이 낮은 집단들 보다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도 높았다. 예를 들면 다섯 개의 기준들에 대한 측정치에 기초해 볼 때 국회의원들(5.20)과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4.51)은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이고 경상도 출신(3.67)나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4.06)은 실체성이 낮은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들의 집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들(5.51)과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5.03)이 경상도출신의 사람들(3.74)과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3.95) 보다 집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가 의미있게 높았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집단실체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집단실체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과 집단실체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을 선정하여 집단실체성에 따라 피험자들의 집단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들이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을 지각할 때에는 그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같은 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단일성과 통일성을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집단실체성이 낮은 집단을 지각할 때에는 집단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단일성을 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피험자들의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각기 다른 가정과 기대는 집단에 대한 지각에서도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군집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각할 때에는 그들에 대해 단일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집단실체성이 낮은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각할 때보다는 더 일관되고 통일된 인상을 형성할 것이고 그 결과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더 적은 군집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1에서 선정된 실체성이 높은 집단은 대학교수 집단과 국회의원 집단이었으며, 실체

성이 낮은 집단은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과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이들 집단을 선정한 것은 집단실체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들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이기 때문이었다.

## 피험자

서울시내 Y대학교와 K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573명(남자: 384명, 여자: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시간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가 끝난 후 설문지의 뒷면에 자신의 출생지를 적게 하였다. 본 연구에 지역집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적집단과 일치하는 출신지의 응답자들은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에 있어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특질선정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로 하여금 40개의 특질들상에서 각 표적들을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은 네가지이었던 바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경상도집단과 전라도 집단 등이었다.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질추론에 사용된 40개의 특질은 송관재(1991)의 연구에 기초하여 선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대학교수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형용사들을 적게 하였는데 그들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 특질 40개를 선정하였다. 지역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에 사용된 40개의 특질은 기존의 지역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한국심리학회, 1988)에서 사용된 특질들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각각의 특질을 표적별로 제시해 주고 각 표적이 제시된 특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9점 척도상에서 나타내게 하였다.

## 결 과

표적집단별로 측정된 특질추론을 통해 각각의 특질들이 표적집단에 따라 어떠한 하부유형으로 묶여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특질들을 군집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군집분석의 여러 기법 가운데서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각 특질을 차례로 보다 큰 군집으로 분류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특질이 하나의 큰 군집을 이루도록 해나가는 방식이다. 군집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complete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경상도집단의 경우 군집분석의 결과를 수목표(dendrogram)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수목표는 각각의 군집들이 어떻게 합쳐지며 그들이 합쳐질 때 상이성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이다. 그림 1에 나타난 수치는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상이성 수치이며, 만약 수치가 5.31이면 군집내의 특질들 사이의 최대거리는 5.3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치가 보다 작을 수록 군집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포함된 특질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느냐 하는

기준에 대해서 군집분석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적합한 영가설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변수 표집분포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한다 (Aldenderfer & Blashfield, 1984).

본 연구에서는 두 군집간의 합쳐지는 거리를 나타내는 군합계수에 기초하여 군집을 분류하였다. 군합계수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유사한 군집이 합쳐진다는 표시이고, 군합계수가 크면 상대적으로 상이한 특질들이 포함된 군집이 합쳐진다는 표시가 된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큰 계수값이 발견되는 곳을 군집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법은 요인분석에서 필요한 요인의 갯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스크리 도표(scree diagram)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경상도집단의 조건에서 추론한 것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개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인정이 있다'에서 '사교적이다'에 이르는 14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고, 군집 2는 '검소하다', '꼼꼼하다', '근면성실하다', '친절하다', '유순하다'의 다섯 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다. 군집 3은 '보수적이다', '융통성이 없다', '무뚝뚝하다', '행동이 느리다', '소극적이다'의 다섯 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다. 군집 4는 '성급하다', '고집이 세다', '반항적이다'의 3개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며, 마지막 군집 5는 '약삭 빠르다'에서부터 '악착같다'까지 13개의 특질들로 구성된 군집이다. 각각의 군집들에 대해 특질평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해 본 결과 군집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4,1060)=72.00, p<.001$ ).

전라도 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을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다섯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군집 1은 '인정이 있다'에서 '사교적이다'에 이르는 13개의 특질들로 구성된 군집이고, 군집 2는 '근면 성실하다'에서 '꼼꼼하다'까지 4개의 특질들로 이루어진 군집이다. 군집 3은 '행동이 느리다'에서부터 '무뚝뚝하다'에 이르기까지 5개의 특질들로 이루어진 군집이고, 군집 4는 '고집이 세다'에서부터 '표리부동하다'까지 14개의 특질들로 이루어진 군집이다. 군집 5는 '생활력이 강하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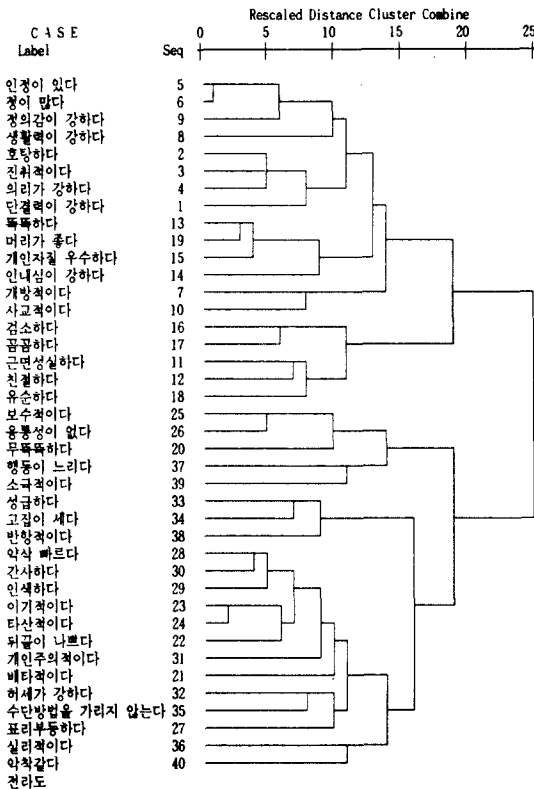


그림 1. 경상도 출신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의 수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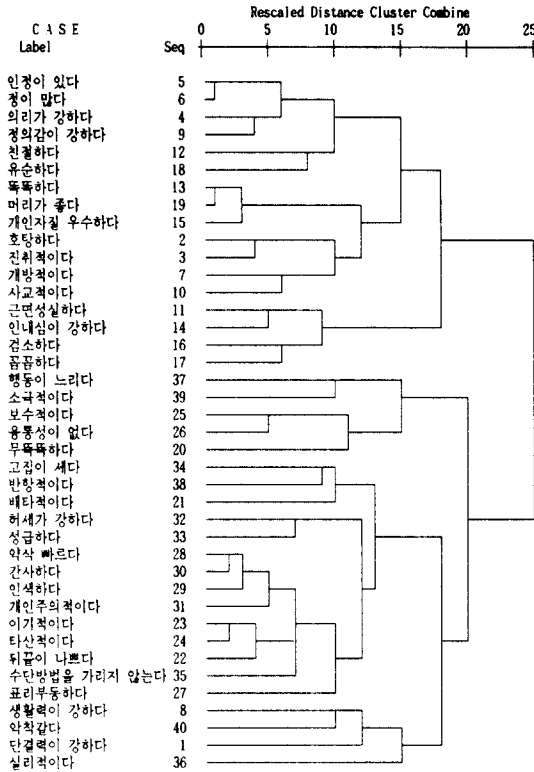


그림 2. 전라도 출신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의 수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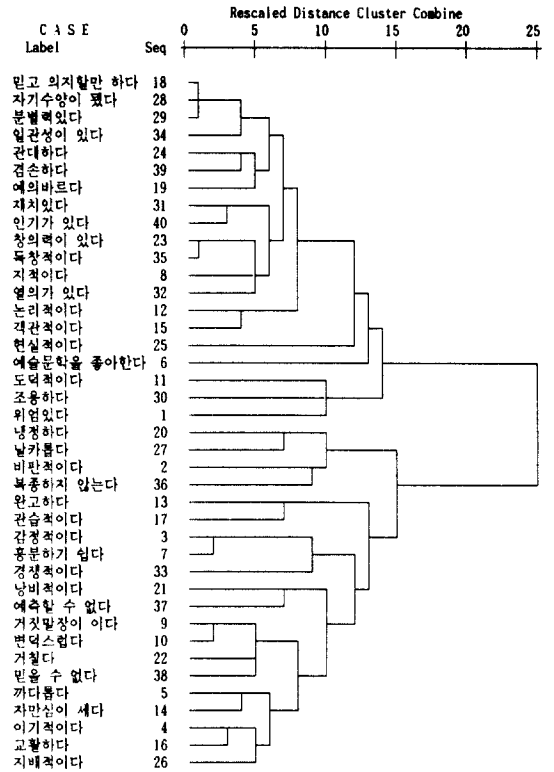


그림 3. 대학교수 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의 수목표

표 4. 각 집단별 특질평정치의 평균

	경 상 도 평균(SD)	전 라 도 평균(SD)	대학교수 평균(SD)	국회의원 평균(SD)
군집 1	6.09(1.18)a	5.80(1.22)	5.69(1.35)	5.67(1.36)
군집 2	5.24(1.50)	5.81(1.49)	4.76(1.26)	5.14(1.27)
군집 3	4.67(1.31)	4.66(1.26)		
군집 4	5.68(1.60)	4.83(1.47)		
군집 5	4.25(1.36)	6.24(1.20)		

a: 군집에 속한 특질평정치의 평균

서부터 '실리적이다'까지 4개의 특질들로 이루어진 군집이다. 각각의 군집들에 포함된 특질평정치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해본 결과 군집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4,1032)=66.79, p<.001$ ).

대학교수집단에 대한 특질추론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수집단의 조건에서는 두개의 군집이 발견되었다. 군집 1은 '믿고 의지할 만함'에서부터 '위엄있다'까지

20개의 특질로 구성된 군집이고, 군집 2는 '냉정하다'에서부터 '지배적이다'까지 20개의 특질들로 구성된 군집이다(그림 3). 이들 군집간에 특질평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61)=6.56, p<.001$ ).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특질추론결과를 군집 분석하였을 때에도 대학교수집단과 유사하게 두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군집 1은 '자기수양이 됐다'에서부터 '복종하지 않는다'에 이르기까지 23개의 특질들로 구성된 군집이고, 군집 2는 '이기적이다'에서부터 '현실적이다'까지 17개의 특질들로 이루어진 군집이다(그림 4). 두 군집들간의 특질평정치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50)=3.48, p<.001$ ).

## 논 의

최근에 사회인지 분야에서는 지각대상에 따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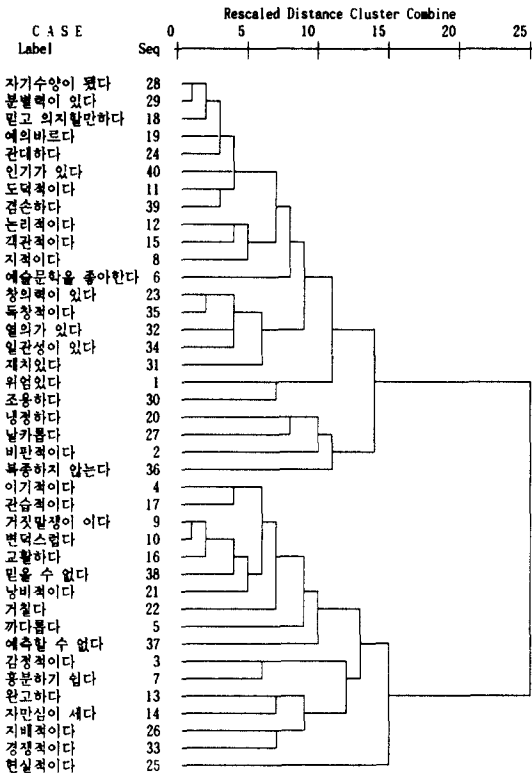


그림 4.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의 수목표

처리과정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몇몇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지각대상이 개인이나 집단이냐에 따라 정보처리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각자가 지각대상에 따라 정보처리를 달리 하는 이유는 지각대상 자체에 있기보다는 지각대상이 달라짐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기대 및 가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지각대상에 대한 기대 및 가정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각자의 기대 및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로 인한 집단지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을 지각할 때 집단의 유형에 따라 가정과 기대가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집단실체성(entitativity)의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집단실체성은 사회적 집합체가 실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지

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1958)이 제시한 3가지 기준(근접성(통일성으로 측정), 유사성, 공동운명)이외에 연구자들이 지각적 조직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의 기준(결과의 존성, 상호작용, 집단침투성, 집단자긍심)들을 첨가시켜 도합 7개의 기준으로 구성된 척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을 제외한 5개의 기준들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Campbell이 제시한 3개의 기준들과 연구자들이 첨가시킨 다른 기준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을 제외한 2개의 기준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집단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된 7개의 기준들중 집단침투성과 자긍심을 제외한 다섯 개의 기준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집단실체성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집단동질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집단동질성은 사회적 집단의 지각된 변산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사람들이 내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외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집단실체성의 개념과 집단동질성의 개념은 서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구성원간의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들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성은 집단동질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집단구성원간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집단의 동질성이 높게 지각된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실체성도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동질성의 개념은 상대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외집단에 대한 동질성지각은 내집단에 대한 지각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집단실체성은 집단구성원간의 유사성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포함시켜 집단의 지각된 단일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동질성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집단실체성이 집단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측정

된 집단실체성에 기초하여 실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선정하고 각 집단들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집단실체성이 높은 집단으로는 대학교수집단과 국회의원 집단을 선정하였고, 집단실체성이 낮은 집단으로는 경상도집단과 전라도집단을 선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각 집단들을 제시해주고 40개의 특질상에서 이 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특질추론을 하게 하였다. 집단의 유형에 따른 특질추론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군집분석 결과 집단실체성이 높은 대학교수집단과 국회의원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각 2개의 군집이 나타났고, 집단실체성이 낮은 경상도 출신집단과 전라도출신 집단의 경우에는 각각 5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대한 집단실체성의 지각정도에 따라 집단에 대한 특질추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적대상에 대한 정보처리와 사회인지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적대상과 일치하는 정보와 불일치하는 정보중 어떤 정보가 더 잘 처리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적대상에 대한 인지적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가 불일치하는 정보보다 기억이 더 잘되는 경우가 있다. 도식적 정보처리 모델의 하나인 선택적 처리가설(selective processing hypothesis)은 부호화단계에서 일어나는 차별적 처리과정으로 인하여 일치정보가 불일치정보나 관련없는 정보보다 더 잘 기억되는 편파가 일어난다고 한다.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주의집중을 받기 때문에 더 잘 부호화되며 따라서 인지적 표상속으로 더 잘 동화되는 것이다. 반면 불일치정보나 관련없는 정보는 무시되어 인지적 표상 속으로 동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Hastie(1980)와 Srull과 Wyer(1989) 등이 주장한 연합망 이론(associative network model)에서는 표적대상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보다 불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불일치정보가 더 잘 회상된다는 것은 정보가 도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자가 도식과 관련된 다른 정보와 불일치 정보간의 관계를 더 생각하게 되어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교한 연합망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지각대상이 개인일 때의 정보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일치정보보다는 불일치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치정보 보다는 불일치 정보를 더 잘 기억해 낸다고 한다. 그러나 행동기술문이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묘사하는 경우 일치정보에 비해 불일치정보가 더 잘 회상되지는 않았다(Stangor & McMillan, 1992). 표적대상에 따른 일치정보와 불일치정보의 처리에 관한 비일관성은 선택적처리가설과 연합망이론과 같이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지각자의 정보처리목적(Srull, 1981)과 자극정보의 복잡성(Hamilton, Driscoll, & Worth, 1989) 등 다른 요인들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집단실체성이 지각대상에 대한 지각자의 기대 및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지각자의 지각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지각이 달라진다면 집단실체성이 집단 정보처리과정에서의 비일관성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가정과 기대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집단실체성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집단유형별로 집단의 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집단유형을 포함시켰다. 23개의 집단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집단유형과 피험자들이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집단유형들을 포함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기준들에 따라 집단유형을 분류한 다음 집단실체성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또 다른 한계는 집단실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된 기준들과 관련된 것이다. 집단실체성을 측정하는 기준들 중 통일성은 연구자들이 근접성을 대체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통일성은 Campbell이 주장한 근접성의 개념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집단이 갖고 있는 실체의 본질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실체성에 따른 집단지각의 차이만을 살펴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을 집단실체성에 기초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실체성이 높게 지각되는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기대 및 가정은 지각자가 개인을 지각할 때와 유사할 것이며 집단실체성이 낮게 지각되는 집단에 대한 지각자의 기대 및 가정은 개인을 지각할 때와 다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유형의 집단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송관재(1991). 특질 유사성 측정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32-46.
- 송관재(1993). 지각적 특출성과 내외집단 편파가 개인의 착각상관에 미치는 영향: 기억추론과정과 온라인 추론과정상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심리학회편(1993).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 Asch, S. 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Anderson, N. H.(1974). Information integration: A brief survey. In D. H. Krantz, R. C. Atkinson, R. D. Luce, and P. Suppes(Eds.),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mathematical psychology*. San Francisco, CA: Freeman.
- Asch, S. 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argh, J. A., & Thein, R. D.(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the recall-judgment link: The case of information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 Campbell, D. T.(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 14-25.
- Carlston, D. E., & Skowronski, J. J.(1994) Savings in the relearning of trait information as evidence for spontaneous inference gen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40-856.
- Clary, E. G., & Tesser, A.(1983). Reactions to unexpected events: The naive scientist and interpretive ac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609-620.
- Gilbert, D. T.(1989). Thinking lightly about others: Automatic components of the social inference process. In J. S. Uleman & J. A. Bargh(Eds.), *Unintended thought(pp.189-211)*. New York: Guilford.
- Gilbert, D. T., Pelham, B. W., & Krull, D. S.(1988). On cognitive busyness: When person perceivers meet persons percei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33-740.
- Hamilton, D. L., Katz, L. B., & Leirer, V. O.(1980). Organizational processes in impression format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Jr., D. L. Hamilton, & D. E. Carlson(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pp.121-153)*. Hillsdale, N.J.: Erlbaum.
- Hamilton, D. L.(1981).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persons.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Vol. 1, pp.135-159)*. Hillsdale, N. J.: Erlbaum.
- Hamilton, D. L.(1988). Causal attribution viewed from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D. Bar-Tal & A. W. Kruglanski(Eds.), *The social psychology of knowledge(pp.359-385)*. Cam-

- 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ilton, D. L., Driscoll, D. M., & Worth L. T. (1989). Cognitive organization of impressions: Effects of incongruency in complex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925-939.
- Hamilton, D., & Sherman, S. J.(1989). Illusory correlations: Implications for stereotype theory and research. In D. Bar-Tal, C. F. Graumann, A. W. Kruglanski, & W. Stroebe(Eds.), *Streeotyping and prejudice: Changing conceptions(pp.59-82)*. New York: Springer-Verlag.
- Hamilton, D., & Sherman, S. J.(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 336-355.
- Hastie, R.(1984). Causes and effect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4-56.
- Hastie, R., & Kumar, P. A.(1979).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5-38.
- Hastie, R., & Park, B.(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Hemsley, G. D., & Marmurek, H. H. C.(1982). Person memory: The processing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person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433-438.
- Hirt, E. R.(1990). Do I see only what I expect?: Evidence for an expectancy- guided retriev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37-951.
- Howard, J. W., & Rothbart, M.(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Jones, E. E.(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Freeman.
- Jones, E. E., & Davis, K. E.(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s.) *Advances in experimantal social Psychology(Vol. 2,pp. 21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Kelley, H. H.(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15, pp.192-240)*.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ingle, J. H., & Ostrom, T. M.(1979). Retrieval selectivity in memory-based impress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80-194.
- Lutsky, N. S., Bacon, P. L., & Dawson, K. L.(1994). *The more things stay the same: Stability in person perception*.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Los Angeles, CA.
- McConnell, A. R., Sherman, S. J., & Hamilton, D. L.(1994b). The on-line and memory-based aspects of individual and group target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73-185.
- Sanbonmatsu, D. M., Sherman, S. J., & Hamilton, D. L.(1987). Illusory correlation in the perception of individuala and groups. *Social Cognition*, 5, 1-25.
- Shcaller, M., & Maass, A.(1989). Illusory correlation and social categorization: Toward an integration of motivational and cognitive factors in stereotype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709-721.
- Sneider, D. J.(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 Strull, T. K., & Wyer, R. S., Jr.(1989). Person memory and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96, 58-83.

- Strull, T. K.(1981).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7, 440-462.
- Strull, T. K., Lichtenstein, M., & Rothbart, M.(1985).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processes in pers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316-345.
- Stangor, C., & McMillan, D.(1992). Memory for expectancy-congruent and expectancy-incongruent social inform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and social develop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11, 42-61.
- Stern, L. D., Marrs, S., Miller, M. G., & Cole, E. (1984). Processing time and the recall of inconsistent and consistent behaviors of individuals and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53-262.
- Stroessner, S. J., Hamilton. D. L., Acorn, D. A., Czyeweska, M., & Sherman, S. J.(1989). *Representational differences in impressions of groups and individuals*. Paper presented at APA Convention, New Orleans, LA
- Susskind, J., & Hamilton, D. L.(1994). *The effects of perceived target unity on trait judg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Convention, Washington, D.C.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ylor, S. E.(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D. L. Hamilton(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pp.83-114). Hillsdale, NJ: Erlbaum.
- Uleman, J. S.(1987). Consciousness and control: The case of spontaneous trait infer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337-354.
- Winter, L., & Uleman, J. S.(1984). When are social judgments made? Evidence for the spontaneity of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37-252.



# **The Effect of Group Entitativity on Information Processing of Groups**

**Beom-Jun Kim, Kwan-Jae Song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Groups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ways. In this study, an attempt is made to examine the extent of entitativity which the people perceive about various groups. The Group Entitativity Scale was constructed based on Campbell's concept of entitativity. The scale included seven criteria such as similarity, common goals, cohesiveness, outcome dependency, interaction between group members, group permeability, and group esteem. In study 1, 288 students rated a number of different groups on 7 criteria.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riteria was investigated. The result shows that five criteria, excluding group permeability and group esteem,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showing high reliability among all various group types. On the basis of above, study 2 was conducted, designating high and low entitativity groups in order to examine how inference made about the two kinds of groups differed. A group of professors and politicians were designated as the high entitativity group, while the Keongsang-do and Chunla-do group were designated as the low entitativity group. 573 students rated members of each group on 40 traits used to describe members of each group in the previous study.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oup entitativity on trait inference for members of each group. The result showed that 2 clusters were revealed in high entitativity groups, and 5 clusters in low entitativity groups. This result indicate that information processing for groups differs depending on the extent of entitativity of a person's perception for certain group types.